

□ 질의내용

최근 여러 대학에서 미래지향적 교육개혁과 대학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학부(과) 통폐합이나 첨단학과 신설, 융복합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에는 학부(과)별 교수 및 학생 정원의 조정과 모집단위 변경 등 대학의 구조와 학사에 큰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우리대학의 총장후보자로서 우리 대학에서도 이런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지와 그럴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인지 밝혀주십시오. 시도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학과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 답변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과 일자리 수요가 급격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학과나 융합 전공의 신설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며 교수와 학생 정원의 조정과 모집단위 변경 등이 수반될 것입니다.

저는 공약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단과대학인 융합 칼리지 설립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무전공 입학, 학과 간의 이동, 융합전공 및 마이크로디그리 등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과의 전부, 또는 부분, 또는 교수 개인이 융합칼리지로 이동할 수도 있고 겸임으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학사구조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인위적인 조정을 강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융합 칼리지 참여는 학과 및 소속 교수의 자율적 결정 사항입니다. 대학의 교육 지향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중재 조정역할은 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정책이나 지속적 미충원 발생 등의 요인에 의해 학과 정원 조정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총장이 되면, 유지를 원하는 작은 학과의 임계질량을 우선적으로 지키겠습니다. 또한 정원이 줄면 이에 맞추어 강의 개설 기준 등을 조정하여 학과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학과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노력, 그 성과와 책임, 저는 기본적으로 학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장이 되면 학과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학과의 주도적인 노력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제8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기호 2번 곽호상 올림